

국가별 동향



러시아

계란산업 부진

러시아의 계란산업이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계란산업의 순이익이 지난해 국내 도매가격 하락으로 10개당 0.56달러로 마 감되면서 2억 5400만 달러 감소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계란 가격 하락으로 수익 성이 5%로 떨어졌다. 이는 소규모 농장의 감소와 계란 가격 하락에 따른 것으로 추정 된다. 이에 반해 계란 생산은 계속해서 증가 하고 있어 농장의 손실이 매우 큰 상황이다. [The Poultry Site]



불가리아

가금류 농장에 대한 통제 강화

불가리아 식품안전청(BFSA)은 조류 독감 의 최신 사례와 관련하여 가금류 농장의 관 찰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발표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농장에서의 생물학 적 안전, 실험실 통제 및 전국에서 일어나는 질병 예방이 포함된다. 한편, 불가리아 식품 안전청(BFSA)은 11월 초에 H5형 조류인플

루엔자를 등록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 는 조치가 이뤄졌다. [The Poultry Site]



미 국

동물복지 권리 관련 법안 발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의한 제12호는 2022년 이후 산란계 닭의 케이지 사육을 금 지하는 내용이다. 닭뿐만 아니라 송아지, 돼 지 또한 이에 포함된다. 미국 동물 보호 협 회는 이번 발의안이 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 하며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 지만 이는 가금류 산업의 운영을 복잡하게 하며 소비자들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고 식품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 도 나오고 있다. [USA TODAY]



인 도

타밀나두주, 닭고기 가격 최고가

인도 남부의 타밀나두주에서 닭고기 가격 이 도매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소매시장에서 kg당 120파운드 이상으로 전례 없는 최고 치를 기록했다. 육계 가격을 책정하는 육계



조정위원회(BBC) 대표는 소매 시장에서 닭고기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11월에 있을 축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닭고기 가격뿐만 아니라 계란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The Poultry Site]



영국

물에 빠진 닭 구조



영국 속령의 섬인 카브리해의 요트 클럽을 방문한 한 여성이 물에 빠진 닭을 구하기 위해 운

하로 뛰어 들었다. 여성은 닭이 물에 빠지자 바로 운하에 뛰어 들어 닭을 구출했다. 인터뷰를 통해 “동물일지라도 생명은 모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닭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광경을 본 목격자들이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리면서 관심을 받았다. [UPI.com]



터키

닭고기 이익 증가, 계란 생산 감소

터키 통계청은 2018년 9월까지의 계란 및 육계 생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계란 생산량은 16억개를 기록했고, 9월에 전월 대비 1.9% 줄었고,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닭고기 생산량은 전월 대비 2.4% 증가,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하여 165,953톤이었다. [The Poultry Site] 양계

세계의 갈색산란계

하이라인® 브라운

균형 육종의 마스터피스

- 産卵피크 및 지속능력
- 卵重의 비밀
- HU, 난각, 난각색
- 生存率
- 온순성
- 사료요구율
- = 수익성



하이라인 생산그룹

봉산부화장 · 신진BHB
(주)양 지 · 한국양계(주)